

주가폭락 유탄 맞은 CFD 투자... 큰손, 강통계좌 속출

〈진입·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

공매도 10배 레버리지 효과 증시폭락에 투자자 문의 빗발쳐 10%만 하락해도 반대매매 속출 “환율변동 주의, 리스크 인지해야”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강통계좌’가 속출하면서 증권사 지점에도 비상이 걸렸다. 향후 CFD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일부 증권사 지점은 CFD로 비상이 걸렸다. 바로 전날(월요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는 현재 교보증권, 키움증권, DB투자증권이다.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

1.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
레버리지 최대10배, 공매도가상

2. 거래종목
- 국내 KOSPI/KOSDAQ 주식
- 당사 신용공여 종목군 내에서 증거금을 차별화하여 제공 예정
만기 없음

3. 거래프로세스
① 고객이 HTS로 CFD 주문
② 당사 서버를 통해 ■ 장외중개회사로 주문 전송
③ 해외 장외중개회사와 ■ 프라이머 브로커(Prime Broker) 간 장외 거래
④ 프라이머 브로커(Prime Broker)가 KRX에 주문 실행
※ 해당 주문은 실시간으로 전송/결제됨

■ 장외중개회사 (CIMB 그룹 자회사 - CIMB그룹(모회사))
말레이시아 2위 은행(쿠알라룸푸르 소재) 포함한 금융그룹
자산규모 139조원 / 시가총액 15.5조원 / 자본금 6조원 / 임직원 3만9천명
말레이시아 정부 지분 50%

■ PB(Prime Broker) (주문창구)
도이치(독일), 노무라(일본), Credit Suisse(스위스), 골드만삭스(미국)

한 증권사가 고객에게 배포한 CFD 투자설명서.

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을 사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공매도와 차이점은 1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거금 10%를 적용 받아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을 가지고도 삼

성전자 주식 100억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주가가 10%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리스크(Risky)한 투자다.

전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크게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일 코스

닥 시장은 4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1230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한 증권사 지점 프라이빗뱅크(PB)는 “CFD 투자자 문의가 빗발쳤다”면서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이렇게 큰 폭락장이 올지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의 뇌관은 ‘신용용자잔고’ 뿐만 아니라 CFD 물량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다. 10%만 하락해도 반대매매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CFD는 해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로 잡힌다. 환율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CFD는 전문투자자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좌에 5억원 이상 잔고가 있으면서 직전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전문투자자요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요건 완화로 대상이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FD는 대주주양도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CFD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CFD 거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지난달부터 전문투자자 대상 CFD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가 공매도 거래 접근성이 개인에게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의 형평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담보대출보다도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10배 수익률을 미끼로 무작정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화웨이와 콘텐츠 계약... “애플 디즈니 목표” NH투자증권 조직개편... 디지털 혁신 강화

IPO 기자간담회
캐리소프트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으로 12·13일 청약, 23일 코스닥 상장 콘텐츠 구독자 2억7000만명 ‘캐릭터 IP’로 사업 저변 넓혀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

박 대표는 “한 번도 제작을 외주한 적 없다”면서 “모두 내부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및 해외 시장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키즈 콘텐츠기업 ‘캐리소프트’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노크한다. ‘플리토’에 이어 두 번째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이다.

캐리소프트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까지 수요 예측을 거쳐 오는 12, 13일 청약을 실시하고 이달 23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리소프트는 2014년 10월,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어린이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는 4년여 만에 세계 2억7000만명 이상의 구독자와 시청자를 확보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다.

성공적인 유튜브 진출을 발판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키즈카페, 머천다 이징(상품), 라이선싱, 교육(콘텐츠·미디어)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인 ‘캐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 음원을 제작하고 있다.

박창신 캐리소프트대표는 “국내에서 공연 사업은 안정적으로 매주 공연을 이어나갈 정도”라면서 “해당 사업은 중국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리소프트는 자체 콘텐츠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모션 캡처기술, 실시간 생방송 기술, 증강현실(AR)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기반으로 자체 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 원소스 멀티유즈(OSMU)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시간 내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혁신본부·브랜드전략팀 신설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 선제적 대응”

NH투자증권은 디지털 혁신의 범위를 전사로 확대하고 이행속도와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Digital) 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NH투자증권은 전사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관련한 변화 관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사업부문별 비즈니스 특성,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실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혁신본부 산하에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디지털 IT 경쟁력 강화태스크포스(TF)를 디지털운영부로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NH투자증권

변경·편제해 1본부 2부를 구성했다. 디지털혁신부는 디지털 혁신 아젠다 발굴·기획, 타사·해외 디지털 혁신동향

조사·분석 및 벤치마킹, 전략적 외부역량 활용 추진의 업무를 진행하며, 디지털운영부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관리, 전사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혁신 전략을 전사적 관점 및 현업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브랜드전략 위원회를 최고경영자(CEO) 직속기구로 신설했다. 브랜드전략위원회는 CEO, 경영지원총괄임원, 경영전략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유관 부문의 사업부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브랜드 전략 추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디지털 중심의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는 회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증권 다이제스트

하나금융투자
ELS 등 파생결합3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1년 동안 두 번의 리자드 상환 기회를 부여한 더블찬스 리자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 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 청약기간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까지다. 먼저 미국지수(S&P500), 유럽지수(EUROST OXX50), 일본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3.7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10024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이상(1차)·90%이상(2차)·85%이상(3차)·80%이상(4차)·75%이상(5차)·65%이상(만기)이며 녹인은 없다. /손엄지 기자

KB증권
ELS·DLS 6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13일까지 주가연계증권(ELS) 5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1종 등 총 6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에이블(able) ELS 945호는 니케이225(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KB able ELS 946호는 Nikkei225지수와 상하이선전300(CSI30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5.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손엄지 기자

한국투자증권
‘TRUE ELS 12282회’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8일까지 삼성전자, 홍콩H(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노숙인(파워) 스태다온형 TRUE 주가연계증권(ELS) 12282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3년 만기의 이상품은 6개월 단위로 상환을 관측해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의 92%(6개월), 87%(12개월), 82%(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6.0%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된다.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의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2% 이상이면 18.0%(연 6.0%)의 수익이 지급된다. /채윤정 기자